

창덕궁(昌德宮) 궁궐 내 조경수목 식재 변화 연구

나호주* · 한봉호** · 김종엽*** · 김동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 (재)환경생태연구재단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I. 서론

창덕궁(昌德宮)은 전각(殿閣)은 물론 후원의 정자(亭子)와 누각(樓閣)이 자연에 동화되어 자연적인 배치를 보여주는(우주선, 2005) 동아시아 궁궐건축 및 정원 디자인의 뛰어난 원형으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형식의 탁월함을 인정받아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박진재, 2004). 하지만 창덕궁을 비롯한 궁궐 내 조경에 관련된 학술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창덕궁의 식재 관련 연구 역시 매우 빈약하며, 특히 건축물 주변 수목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덕궁(昌德宮) 건축물 주변 식물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식물변화를 고찰하고 공간별 이용특성에 맞는 수목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에 향후 관리와 정비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대상지 선정

본 연구는 창덕궁 총 면적 405,636㎡ 중 후원 면적 약 300,000㎡를 제외한 건축물 주변 조경수 식재지와 화계 약 105,636㎡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그 중 돈화문(敦化門) 금천교(錦川橋) 지역, 인정문(仁政門) 인정전(仁政殿) 지역, 대조전(大造殿) 지역, 낙선재(樂善齋) 지역, 주합루(宙舍樓) 지역, 궐내각사(闕內各司) 지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였다.

2. 조사 분석 방법

창덕궁(昌德宮)의 개항과 조영연혁, 식생경관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조선왕조실록, 산림경제, 동궐도 등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궁원의 식생경관을 추정하여 창

덕궁(昌德宮) 건축물 주변의 식생경관 변화를 파악하였다. 건축물 주변 식물 식재현황은 화계 조성지와 조경수 식재지로 구분하여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실시하였다. 건축물 주변의 모든 생육 수목을 대상으로 조성형태와 재료, 식재종의 성장과 증명, 수목별 흉고직경, 수고, 수관폭을 측정하였으며, 1/1,000 수치지형도에 그 위치와 관리번호를 표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시기별 수목 식재 현황

조선시대 고문헌에 등장하는 창덕궁 건축물 주변 식물은 소나무, 연꽃,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버드나무, 모란, 대나무, 은행나무, 난초, 작약, 대추나무, 앵두나무, 단풍나무, 모란, 매화 등이었다.

1826년경에 제작된 동궐도(東闕圖)에 나타나는 창덕궁 식재 수목은 총 532주이였으며, 상록침엽수 107주, 낙엽활엽수 419주, 화관목류 135주, 기타 관목류 15주, 취병이 4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주요 수목으로는 소나무 80주, 향나무 3주, 전나무 9주, 버드나무 17주, 복사나무 40주 등 이었다.

1989년 창덕궁 원유에서는 전체 91종에 1,481주가 확인되며, 주요 수목은 향나무 190주, 소나무 65주, 주목 62주, 가이즈까향나무 51주, 단풍나무 92주, 노무라단풍 90주 등이었다. 외래종으로는 리기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독일가문비, 가이즈까향나무, 연필향나무, 나사백, 노무라단풍, 은단풍, 일본목련 등이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 때 식재되었다.

2013년 본 연구에서 조사된 창덕궁 건축물 주변 식물은 총 100종에 1,738주이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무분별하게 식재 되었던 외래종 위주의 수목은 대부분 정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권역별 조경수목 식재특성과 변화

돈화문(敦化門), 금천교(錦川橋) 지역은 진입공간이자 금천(錦川)이 흐르는 친수경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동궐도(東闕圖) 상에는 상록침엽수가 3주, 버드나무가 15주, 복숭아나무 6주, 화관목이 15주, 기타 낙엽활엽수가 25주가 식재되어 버드나무가 우점인 경관을 형성하였다. 본 조사에서 확인된 조경수목은 소나무 22주, 버드나무 1주, 매화나무 7주, 회화나무 7주 등으로 창덕궁의 전통 수경관을 형성하였던 버드나무에 대한 보완식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전(仁政殿)은 창덕궁의 정전이다. 동궐도(東闕圖) 상에는 인정전(仁政殿) 뒤쪽으로 조성된 5단 화계 중 4단과 5단에 만 조릿대가 식재 되어 있으며, 1989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궁궐 훼손과 철거 과정에서 식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23종 95주가 식재되어 있었다. 현재(2013년)는 인정전(仁政殿) 뒤 화계에 조릿대만 식재되어 있으며, 동궐도(東闕圖) 상의 경관과 비슷한 경관을 형성하였다.

대조전(大造殿) 지역은 연조(燕朝) 공간으로 동궐도(東闕圖) 상에는 소나무 2주, 낙엽활엽수 16주, 화관목 14주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현재(2013년)는 소나무 7주, 앵두나무 59주, 산철쭉이 112주 등이 식재되어 있다. 징광루(澄光樓)와 집상전(集祥殿) 사이 화단(花壇)에 있는 소나무 2주는 건축물 인접 지역 거대 수목으로 관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낙선재 지역의 경우 조성 초기에는 현종이 일상생활을 영위 하던 공간으로 단청도 하지 않은 소박한 공간이었다. 화계의 지나친 장식 위주 조경요소 도입을 자제하고 식재의 경우 초기 조성 특성에 맞도록 화목보다는 소박함을 강조할 수 있는 식재양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합루 지역의 경우 규장각(奎章閣)이 정조에 의해 창건(1776) 당시에는 왕의 어진(御眞), 어서(御書) 등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엄숙함과 경건함을 강조하기 위해 화목의 식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순조 이후 왕권 약화로 규장각(奎章閣) 기능이 축소되면서 초기 조성 의도와는 달리 부용지(芙蓉池) 기능에 따른 휴식과 연회의 장소로 변경되었으며, 식재양식도 화목류 식재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장각(奎章閣) 초기 조성 특징을 살려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한 식재양식 제고가 필요하였다.

궐내각사(闕內各司) 지역은 동궐도(東闕圖) 상에 소나무 7주, 향나무 2주, 전나무 4주, 복숭아나무 4주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현재(2013년)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2주, 스트로브잣나무 5주, 소나무 6주, 향나무 1주, 측백나무 1주 등이었다. 건축물 전면의 대칭식재의 보완과 스트로브잣나무의

제거, 인정전 북서쪽 화계에 식재된 금송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창덕궁의 약 200여 년 동안 식재된 조경수목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창덕궁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한 식생관리 목표와 식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돈화문(敦化門), 금천교(錦川橋) 지역의 버드나무 경관 회복, 대조전의 소나무를 비롯한 거대수목 관리, 징광루와 집상전 사이 화단 철거, 주합루의 보완식재, 궐내각사의 대칭식재 보완과 보완식재와 같이 각 권역별 이용특성에 맞는 수목의 정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였다.

전통수목에 대한 연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수목의 특성상 원형보전의 어려움 등 많은 난관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 수목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와 같은 전통수목에 대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전통수목경관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우주선(2005) 동궐도를 통해 본 창덕궁 외부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2쪽.
2. 국립문화재연구소(2008) 사적지 조경실태와 과제 I -궁궐식재 정비 방안 연구-. 339쪽.
3. 박진재(2004) 국내 세계문화유산 주변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0쪽.